

# 진정한 자율안전 문화로 무재해 15배수 달성

##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 설비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가스설비라는 특성상 사소한 실수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가 의미있는 기록을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1996년 3월 18일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이래 2012년 12월 26일까지 총 6,128일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무재해 15배'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15년이 넘는 무재해는 개인 또는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성과인 것이다. 전 직원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를 찾아가봤다.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스스로 무의식 중에 하는 안전**

“누가 시켜서 하는 안전보다 내 자신을 위한 안전, 무의식 중 습관적으로 하는 안전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안전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곳은 그동안의 상명하달 식 안전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방침에 맞게 안전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소 자기 자신을 위한 안전을 자연스레 실천한다.

이와 함께 경영진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아낌없는 투자를 기울인다. 경영진들 스스로가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장비나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다니고, 필요한 점은 즉시 개선해나가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영진과 근로자들 스스로 하는 안전이 무재해 15배수 달성의 원동력이라고 이곳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제 EHSQ 구축 운영**

이곳은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제인 EHSQ(Environment, Health, Safety, Quality)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HSQ란 모빌사를 통해 도입된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로, 이곳에서는 시스템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EHSQ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EHSQ를 토대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안전활동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시로 분석·평가하면서 현장에 대한 적용성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 프로그램은 ‘작업허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KOGAS(한국가스공사)의 작업허가시스템의 발행과 함께 자체적으로도 휴일, 시간 외, 설비지역 외의 작업을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화기, 고소작업, 중량물취급, 유해물질 취급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 또 매일 팀장급 이상 안전미팅을 통해 그날의 주요 작업 사항을 체크,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일일 안전지킴이 제도도 이곳이 자랑하는 안전활동이다. 이는 파트장 이상 관리자가 매일 정비현장을 교차 점검하는 것으로써 부적합 사항을 즉시 발견·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점검 시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SAFETY STOP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인적오류 예방활동 강화**

사고의 80% 이상이 근로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이곳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법정 안전교육은 물론 주요 작업 전, 위험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일 안전동영상 시청’, ‘안전사고전시회’, ‘안전



경고제'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중요작업 또는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비계획서를 작성토록 한다. 이때 관리자와 작업자가 작업절차 및 위험요소 등에 대한 크로스 체크 후 정비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작업시작 시간 및 종료시점(오전 10시, 오후 5시)을 사고 다발시간대로 정해 타 시간대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펼치는 등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를 막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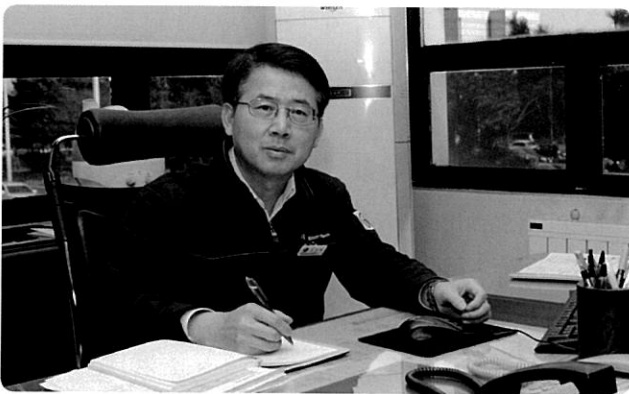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흔히 안전은 100% 확보될 수는 없다고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순간의 방심, 그리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조치 측면에서도 꼼꼼함을 자랑한다.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조치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비치해놓고, 그에 대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연 4회 가상사고 훈련, 연 12회 불시 전화응소 훈련 등 재난 및 긴급 상황에 대응한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사고 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병원응급실 연락처를 카드 형태로 전 직원이 소지토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도 자체 네트워크에 비치·게시해놓고 있다.

이곳은 무재해 15배수 달성을 그리 크게 생각지 않는다. 무재해 20배수, 더 나아가 무재해 30배수라는 대기록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안전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타 사업장의 선진안전문화를 벤치마킹해나가면서 보다 완벽한 안전관리를 구축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이곳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

#### mini interview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 김갑중 지사장

### 휴먼에러를 막는 노력 절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계가 많이 선진화·고도화 됐지만, 인적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인적오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오류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것쯤은 괜찮겠지’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가 업무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해나가면서 안전관리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휴먼에러는 반드시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이 점을 항상 명심하셔서, 평소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